metro Hello 2015

메트로 2015년 1월 2일 금요일 제3127호 www.metroseoul.co.kr

담뱃값 인상 등 올 달라지는 것들

Hello 2015 p/08~09

올 극장가 시리즈 속편 뜨거울듯

Entertainment p/19

MLB 한국인 삼총사 시대 열리나

SPORTS p/21

친환경
착한기업

칭찬합니다!

용지 사용부터 친환경용지를 고집하는 EBS의 교육이념을 칭찬합니다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친환경을 실천하는 착한기업이 있어서 칭찬합니다. 바로 대한민국 대표 교재인 EBS 교재입니다. 친환경용지로 제작된 친환경 교재를 사용하면 우리 아이의 건강은 물론 환경뿐만 아니라 교재비도 저렴해져서 가계부담과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친환경용지 1톤을 사용하면 이산화탄소 45%, 대기오염 물질 74%를 줄일 수 있으며 하루 2,700톤 정도 폐지를 재활용하면 매일 30년생 소나무 43,000그루를 살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간 100만톤 종이 수입에 따른 외화낭비를 막을 수 있고 친환경 산업 육성으로 창조경제와 국가 경쟁력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진짜 GR인증을 받은 친환경용지로 만든 친환경 교재는 일반용지로 만든 일반교재보다 우리 아이들과 환경, 가계경제 그리고 국가경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을 통해 더욱 많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묵묵히 친환경을 실천하는 착한기업을 계속 발굴해서 칭찬 릴레이를 이어가겠습니다.

녹색연합
한국자원순환단체연대회의
전주페이퍼

metro Hello 2015

메트로 2015년 1월 2일 금요일 제3127호 www.metroseoul.co.kr

새로운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다

선배 경제인들의 도전 배우고 창의와 협업 더해 기본으로 돌아가 상생·화합의 길을 향해 갔으면…

한국 경제에 서광이

2015년 '양띠의 해(乙未年)'가 밝았다. 올해는 사회 곳곳에 난마처럼 얽혀버린 실타래를 푸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한다.

양은 우리지어 다니되 다툼이 없고, 반드시 왔던 길로 되돌아간다. 자연의 순리에 응하며 주어진 환경에 조화롭게 적응했다. 양은 재신의 척도이자 상서롭고 정직하며 인내심 강한 동물로 자리잡아 왔다.

이처럼 모든 분야에서 "Back To The Basic(기본으로 돌아가자)"의 의미를 되새기고, 주위와 상생과 화합의 정신으로 나아갔으면 한다.

이런 지향에서 우리 경제에 가장 요구되는 것이 새로운 기업가 정신이다. 세계적으로 장기불황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진 지금 기업가 정신의 부활은 경제강국으로 가는 지렛대가 될 것이다.

새로운 기업가 정신의 핵심은 부단한 도전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신이다. 과거 기업가 정신이 오너 개인의 카리스마로 대표됐다면, 지금은 구성원 각자가 자발적으로 창의의 주체가 돼 조화를 이루는 정신으로 정의된다.

"기업가의 최고의 사명은 일생을 바쳐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나는 인간사회에서 최고의 미덕은 '봉사'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기업은 인간을 가장 높은 가치로 두고, 국가, 국민, 그리고 전인류에 대해 봉사해야 한다." ─ 호암 이병철

"누구에게든 무엇이든 필요한 것은 모두 다 배워 내 것으로 만든다는 적극적인 생각, 진취적인 자세로 작은 경험을 확대해 큰 현실로 만들어 내는 것이 평생 주저해본 일이 없을 뿐이다. 목표에 대한 신념이 투철하고 이에 상응한 노력만 쏟아 붓는다면 누구라도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 아산 정주영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우리나라 기업가 정신이 최근 후퇴하는데 반해 미국 등 주요국은 기업가 정신에서 경기침체의 탈출 해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기업가 정신은 한국의 변화와 혁신을 이끈 원동력 중 하나였으며, 지금은 이에 더해 새로운 기업가 정신을 갖춘 도전정신이 절실한 상황이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신년사에서 밝힌 새로운 기업가 정신은 이에 맞닿아 있다. 박 회장은 "선배 기업인의 도전정신에 합리적 의사결정과 창의와 협업의 정신을 결합해 新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도록 하겠다. 근원적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더하고, 경영관행과 기업문화를 선진화하며 기업체질을 바꾸어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재계의 세대교체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는 올해 故 이병철 회장의 말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故 이병철 회장은 1980년대 초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게 경영권을 인계하기 위한 준비과정에서 "재계 자식대 주자들이 훌륭하게 자기 몫을 수행하고 있어 자랑스럽게 여긴다"며 "사업 그 자체보다 국가의 번영을 우선순위에 놓는 올바른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야말로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보배기자 ksgsi@metroseoul.co.kr

"남북 정상회담 못할 것 없어"

김정은 신년사서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1일 "남조선 당국이 진실로 대화를 통해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입장이라면 중단된 고위급 접촉도 재개할 수 있다"며 "분위기가 마련되면 남북 정상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 제1위원장은 이날 조선중앙TV를 통해 발표한 육성 신년사에서 "북남 사이 대화·협상·교류를 활발히 하여 끊어진 민족적 유대와 혈맥을 잇고 북남관계에서 대전환·대변혁을 가져와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제1위원장이 집권 후 남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제1위원장은 또 '인민생활 향상' 이란 표현을 5차례나 반복했다. 김정은 체제가 올해 민생 안정과 경제개발을 통한 민심 잡기에 힘쓰겠다는 뜻을 드러낸 셈이다.

김 제1위원장은 당 우선 주의 노선을 내세우며 "금강산 등 경제개발구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제1위원장은 "전쟁 연습이 벌어지는 분위기 속에서 신의 있는 대화가 이뤄질 수 없고 북남관계가 전진할 수 없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다"며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를 요구했다. 이어 "상대방의 체제를 모독하고 동족을 모해하는 불순한 정탐 놀음을 그만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발표한 '북한 신년사 관련 정부 입장'에서 "정부는 북한이 이번 신년사에서 전년도에 비해 남북관계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것을 평가한다"며 "북한이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할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우리가 제안한 대화에 조속히 호응하기 바란다"는 원칙적 입장을 강조했다. <관련기사 4면>

/배동우기자 dyc sns@

"을미년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남북관계 훈풍 불어오나

김정은 신년사 '정상회담 시사'… 5월 러시아 성사 가능성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남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언급함에 따라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어올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1일 조선중앙TV를 통해 발표한 육성 신년사에서 "남조선 당국이 진실로 대화를 통해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입장이라면 중단된 고위급 접촉도 재개할 수 있고 부문별 회담도 할 수 있다"며 "분위기가 마련되면 남북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가 말한 최고위급 회담은 정상회담을 의미하는 것으로 김 제1위원장이 집권 후 남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1일 새해를 맞아 육성으로 신년사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김 제1위원장은 또 "북남 사이 대화와 협상, 교류를 활발히 하여 끊어진 민족적 유대와 혈맥을 잇고 북남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와야 한다"며 "대화와 협상을 실질적으로 진척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피력했다.

김 제1위원장이 직접 고위급 접촉과 부문별 회담을 재개하자고 입장을 표명한 만큼 앞으로 북한은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다양한 대화를 제의해올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이같은 태도 변화는 김정은 체제의 안정과 경제 발전을 위해 평화적인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오는 5월 러시아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러시아가 전승 70주년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과 김 제1위원장을 초청해 놓은 터라 만남과 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김 제1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군사연습 중단, 상대에 대한 사상과 제도 강요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어 남북관계 진전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정우기자

환담하는 김무성·이희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새해 첫 날인 1일 서울 마포구 김대중 전 대통령 자택에서 이희호 여사를 예방, 환담하고 있다. /뉴시스

위메프의 '티몬 인수설' 해프닝

기자 수첩

김수정 <생활유통부 기자>

구랍 31일 소셜커머스 업체인 위메프가 갑자기 티몬을 인수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면서 업계의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위메프 측이 예비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사의 단순한 '관심'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가 높다.

티몬은 지난해 11월 그루폰이 추가 투자를 목적으로 재무적 투자자를 찾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 달 뒤인 구랍 31일 '위메프가 삼성증권을 인수자문사로 선정해 티몬 예비입찰에 참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위메프는 보도자료를 통해 "(티몬)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다"며 "인수하는데 의향이 있고 보다 더 진지하게 고민해 보겠다는 의사를 있는 그대로 밝힌 것이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첫 보도 당시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던 것을 바꾼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위메프는 이번 예비입찰에 참여조차 하지 않았고 인수의향서를 제출했지만 그루폰 측에서 거절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위메프의 공식 입장에 의문이 생긴 것이다.

이에 기자는 위메프에 관련 사실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다. 담당자는 "참여한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러나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이 담당자는 "혼선이 있었다"며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번복했다. 관계자는 또 "의향서를 제출한 것은 인수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애매한 말만 되풀이 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인수 과정은 기업가치가 하락할 수 있어 비밀리에 추진된다. 그런데도 위메프는 이런 관례를 깨버렸다. 참여 여부가 정확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내부 사실 확인조차 없이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고 응대한 것은 매우 위험한 결정이었다. 판을 흔들려는 의도인지 아니면 이를 '노이즈 마케팅'으로 이용할 작정이었는지는 위메프 측의 공식 입장이 나오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입장을 밝히기 전에 좀 더 신중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소리만 요란했던 이번 위메프의 티몬 인수 관련 공식 입장은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산업인력공단, 현장중심 조직 개편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박영범)은 1일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일학습병행제 등 국정과제를 통해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현장 중심 조직개편과 인사를 단행했다.

먼저 공단은 국정과제 사업 조기에 마련된 제도들을 현장에서 직접 지원하기 위해 본부 3개 실·국과 9개 팀을 과감하게 축소했다.

이를 통해 공단은 산업계 수요자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여 기구와 인력을 재배치했다.

공단은 지난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직기능을 강화했다.

국민은행, 방송대에 발전기금 7000만원

국민은행이 방송통신대의 대학발전을 위해 기금 7000만원을 기부했다.

국립 한국방송통신대(이하 방송대)는 30일 오후 종로구 동숭동에 위치한 방송대 본관 6층 총장회의실에서 이동국 총장 직무대리와 국민은행 대학로 지점 주현수 지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7000만원을 전달 받았다고 전했다. /송주원기자

지구촌 새해 맞이 풍경 1일(현지시간) 지구촌 곳곳이 새해를 맞아 다채로운 행사로 들썩였다. 영국 런던을 상징하는 대관람차 '런던아이' 앞에서는 화려한 불꽃놀이가 펼쳐졌다(왼쪽). 뉴욕 시민은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신년 행사에 2015년을 상징하는 안경 모으로 헛을 내고 참석했다(가운데). 중국 상하이의 신년맞이 행사장에서는 카운트 다운 행사 도중 35명이 압사하고 42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다. /AP AFP 신화 연합뉴스

LED 7만개 '번쩍'·크리스털 볼 '반짝'

각국 신년 행사 이모저모… 명소마다 시민 인산인해

1일(현지시간) 세계 각국이 다양한 신년 행사로 희망차게 새해의 포문을 열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최대 불꽃놀이를 벌였던 두바이에서는 올해도 대규모 불꽃놀이 행사가 펼쳐졌다.

특히 최고층 건물 부르즈 칼리파에 설치된 7만여 개의 발광다이오드(LED) 램프는 새해 시작과 동시에 불을 밝혀며 국가 지도자들의 사진을 띄워 눈길을 끌었다.

미국 뉴욕 맨해튼의 타임스퀘어에서는 올해도 어김없이 크리스털 볼이 등장했다. 무게 5386kg의 거대 크리스털 볼은 자정을 기해 꼿대를 타고 떨어졌다. 반짝이는 크리스털 볼과 함께 색종이 가루가 터져 나오자 뉴욕 시민은 일제히 탄성을 질렀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의 코파카바나 해변은 새해맞이 불꽃놀이를 보려는 시민으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몇몇 시민은 브라질 전통에 따라 해가 바뀐 직후 얕은 바다로 들어가 파도를 7번 뛰어넘으며 행운을 빌었다.

홍콩의 새해는 불꽃놀이와 민주화 시위로 시작됐다. 시민과 관광객 등 37만여 명이 빅토리아 하버 양쪽 거리를 메운 가운데 펼쳐진 불꽃놀이와 레이저쇼는 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았다. 이날 오전 침사추이와 몽콕 등지에서는 노란 우산을 든 시민 수백명이 '진정한 보통선거'를 외치며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노란 우산은 지난해 두 달 넘게 이어진 홍콩 민주화 시위의 상징물이다.

새해맞이 행사로 전 세계가 흥겨운 가운데 인명 사고도 있었다.

중국 상하이에서는 와이탄 천이 광장 신년맞이 행사장에 인파가 몰려 압사사고가 발생, 35명이 숨졌다. 일본을 여행 중인 한국 고교생은 1일 새해맞이 온해 뛰어들기 에 참여했다가 목숨을 잃었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1일 홍콩의 한 쇼핑몰 앞에서 시위대가 노란 풍선을 하늘로 날려 보내고 있다. /AFP 연합뉴스

"소니 협박에 北 정찰국 관여"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암살을 소재로 한 영화 '인터뷰'의 제작사인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e-메일 협박에 북한 정찰총국이 관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일 교도통신은 미국 외교 관계자의 말을 인용, 영화와 관련해 소니 픽처스 간부에게 발송된 e-메일 중 일부는 정찰총국 산하 해커가 중국 선양의 IP 주소를 이용해 발송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번 해킹을 벌인 집단은 국제해커조직 '어나니머스' 와는 별도의 조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 연방수사국(FBI)이 현재 미국 내 해커를 포함해 용의 선상에 있는 이들의 동향을 추적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밝혔다.

소니 픽처스 간부는 지난해 11월 '평화의 수호자' 로부터 소니 픽처스의 내부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했다는 내용의 e-메일을 받았다. 이후 소니 픽처스 측은 정보 유출은 물론 테러 위협이 느껴지자 한 때 '인터뷰'의 개봉을 취소했다. 하지만 개봉 포기는 테러 위협에 굴복하는 나쁜 선례가 된다는 지적과 독립영화관의 상영 제안이 이어져 결국 극장과 인터넷을 통해 영화를 개봉했다. /조선미기자

담뱃값 인상·음식점 금연 전면 시행

새해 이렇게 바뀐다 - 세제

새해 이렇게 바뀐다 - 노동

새해 이렇게 바뀐다 - 보건·복지

새해 이렇게 바뀐다 - 주택

새해 이렇게 바뀐다 - 고용 노동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7일 경북 포항시 포스텍에서 열린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을 마친 뒤 센터를 시찰하며 산업용 로봇 청소로봇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각종 기업 규제 축소·폐지

재계

증손회사 지분율 요건 50%로 완화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 혁신 거점

새해 경제계는 내수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 축소·폐지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정부가 이른바 '규제기요틴(비효율적이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단기간에 일괄 개선하는 계획)'으로 114건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먼저 대기업의 신규투자 확대를 위해 증손회사 지분 제한을 완화해달라는 재계의 요구가 수용됐다. 공동출자방안 또는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지주회사의 증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을 기존의 100%에서 50%로 완화하기로 했다.

기업공시제도 가운데 대규모 단일판매와 공급계약 공시에 대해서도 계약 진행사항 정기(1년) 공시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IT업계의 금융업 진출을 막아왔던 규제와 통신시장의 경쟁을 막아온 요금 인가제 역시 개선될 전망이다. 오는 2017년까지 20%에 이르는 기존 규제감축 정책은 지속하고, 신설·강화 시 상응하는 비용의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규제총량제'를 전면 시행한다.

기업이 새로운 사업분야 진출을 위해 사업재편을 할 때 절차 특례 등을 패키지로 한꺼번에 지원하는 '사업재편지원특별법'(가칭)이 제정된다.

여기에 대기업들은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 기조에 발맞춰 분주해질 전망이다. 창조경제와 관련해 올해 정부 예산은 8조3302억원으로 편성됐다. 판교테크노밸리를 미국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소프트웨어(SW)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이다.

/박상훈기자

새해 분양시장 더 뜨거울 듯

수도권 매매가 2%, 전세가 5% 상승 전망

부동산

주택시장 회복세는 새해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의 주택 관련 규제 완화 방침이 계속되고 있는 데다 시장 정상화의 걸림돌로 지목되던 '부동산3법'도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해서다.

그러나 서민주거안정 관련 법안들이 끝내 처리되지 못하고 올해로 넘어오면서 전·월세난은 계속해서 서민들의 어깨를 짓누를 것으로 보인다.

분양시장은 물량과 함께 청약1순위자가 대거 풀린다. 공급과잉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1순위 경쟁자가 대폭 늘어나는 만큼 뜨거운 판세가 예상된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015년 주택시장 전망'을 통해 올해 전국 주택 매매가가 2%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수도권 2%, 지방 1.5%다.

수도권은 규제 완화에 힘입어 전년도 상승률(추정치) 1.5%보다 0.5%포인트 확대된 반면, 수도권에 앞서 주택가격 상승을 견인했던 지방은 1.8%에서 0.3%포인트 둔화됐다.

주택 전세가 상승률은 3.5%로 예측했다. 수도권 전세값은 5.0% 오를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전세시장은 ▲입주 물량 감소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이주 ▲혼수재 전세수요 급증 등 3중고가 우려된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올해 전국아파트 입주 물량은 전년(27만7921가구)보다 10%가량 감소한 25만1000가구다. 특히 서울은 3만6797가구에서 2만938가구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입주할 아파트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요는 증가한다. 당장 다가올 봄 이사철에만 개포시영·개포주공2·고덕주공2·고덕주공4·잠원한신5·반포한양 등 약 8000가구의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가 이주에 들어간다. 또 전세 계약이 시즌인 혼수철을 맞아 수요도 몰릴 전망이다.

/박선호기자

선진국 성장 다소 둔화

자동차

2015년 세계 자동차시장은 중국과 인도 등 신흥시장이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 등은 올해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흥 경제국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중에는 러시아를 제외하고 모두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관측됐다.

국내시장은 완만한 경기회복으로 2.0% 성장한 167만대 판매가 예상되며 이는 사상 최대 수준이다. 특히 2015년에는 볼륨 모델 신차가 대거 출시될 전망이다. 1월에 등장하는 쌍용 티볼리를 비롯해 쉐보레 스파크, 현대 아반떼, 기아 K5, 현대 투싼ix, 기아 스포티지R 등의 후속 모델 출시가 예정됐다.

국내 수입차의 고속질주는 새해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산업부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수입차 판매는 지난해보다 19% 증가한 25만대 수준으로 분석됐다.

전 세계 자동차시장은 조 엔저(円低) 시대 대비책 마련에 분주할 전망이다. 대규모 리콜 사태를 겪은 도요타는 이번에 장기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일본 자동차업계 변화에 민감한 국내(현대·기아차) 업계들의 대응도 주목된다.

또 연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CO2(이산화탄소) 규제 강화로 전기차(EV)와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PHEV) 등 친환경차 출시도 강화될 예정이다. 현대차의 경우 2015년에 쏘나타 PHEV를 내놓을 예정이며, 도요타 프리우스 같은 하이브리드 전용 모델도 출시할 계획이다.

/정대연기자

기아차가 2015년에 출시할 소형 SUV 'KX3'

우울한 분위기 지속

기간산업

각종 환경규제 부담 가중

글로벌 경기 위축과 유가 하락으로 국내 기간산업은 올해도 우울할 전망이다.

철강업계는 중국의 철강 공급과잉으로 인한 '차이나쇼크'가 지속되고 이로 인한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로 세계 철강교역시장의 혼돈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철강협회는 올해 철강수요가 지난해보다 3200만t 늘어난 15억9400만t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증가율은 지난해와 비슷한 2.0% 수준이지만, 최대 철강 소비국인 중국은 지난해보다 낮은 0.8%로 예상됐다.

조선업은 지난해 대규모 해양 프로젝트 손실과 신규 수주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올해도 셰일가스 붐으로 저유가 현상이 지속되고, 이에 따른 해양플랜트 침체 지속 등 전반적인 수주 여건이 나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올해 신규 수주량을 지난해 대비 약 12% 감소한 950만CGT(표준화물선환산톤), 수주액은 약 14% 감소한 250억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셰일가스 생산량 증가로 LNG선 수송을 띄울 것으로 보인다. 셰일가스를 운송할 LNG선과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경우 국내 조선업계가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다.

정유·석유화학 업계는 올해도 세계경제 성장률이 3% 초반에 머물 것으로 보여 고전이 예상된다. 국제유가 역시 중동 산유국과 미국 셰일가스의 공급 경쟁이 한층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저유가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내 정유사들은 지난해 유가 하락으로 인해 원유 구입에서 석유제품 판매까지 발생하는 2~3개월의 재고평가손실을 떠안았다.

국제유가의 불확실성도 불안 요인이다. 당분간 저유가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의 경우 배럴당 70 달러 초반은 돼야 재정 균형을 이룰 수 있어 셰일가스와의 장기전을 치를 여력이 있다.

몇몇 전문가들은 미국의 셰일가스 역시 배럴당 60 달러선이 붕괴되면서 생산활동이 점차 위축되고 있어 올해 2분기에는 바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 탄소배출권거래제, 화평법, 화관법 등 각종 환경규제도 부담이다.

/양진영기자

치열해지는 경쟁, 현실로 다가온 미래

전자

중저가폰과 스마트홈 성장 3D 프린터·SSD, 대중화

전자업계는 지난 한 해 치열한 경쟁 상황 속에서 부침을 겪었다. 올해는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한층 가까워진 미래를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트폰은 이전에는 선진국 시장을 중심으로 프리미엄 제품이 강세를 이어갔지만 최근 중국, 인도 등 신흥국 시장을 발판으로 중저가폰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스마트폰 시장에서 중저가폰 비중은 2011년 20.4%에서 연평균 10%씩 증가해 올해 52~5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는 이미 중국과 대만 등에서 출시한 A시리즈와 함께 E시리즈와 J시리즈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 자체 운영체제 타이젠을 탑재한 초저가 스마트폰 'Z1'을 이달 인도에서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도 1분기 중으로 중저가 보급형 스마트폰인 L시리즈와 F시리즈의 후속모델들을 내놓는다.

LG전자는 지난해 12월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가전 제품과 일상 언어로 대화하는 홈챗 서비스를 미국에서 출시했다. /LG전자 제공

성장이 더뎌진 가전 부문은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한 스마트홈으로 전방위 업체간 각축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LG전자뿐만 아니라 지멘스, 밀레 등 가전업체들은 이미 지난해 여러 가전전시회에서 스마트홈 기술을 선보였다. 오는 6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15'에서는 보다 호환성이 높은 스마트홈 서비스를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해 산업계를 뜨겁게 달궜던 3D 프린터도 보다 저렴해진 가격과 나아진 성능으로 크게 성장할 전망이다. 리서치 전문업체 가트너는 올해 3D 프린터 출하량은 21만7350대로 매년 두 배 이상씩 증가하면서 2018년도에는 230만대를 상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SSD가 가격 하락과 신기술 도입으로 대중화 되면서 성능이 극대화된 PC를 만나볼 수 있게 된다. HDD보다 안정성이 높고 정보처리 속도가 빠른 SSD는 최근 2년 사이 가격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보급이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반도체 업계 역시 호황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는 더 빠르고 오래 쓸 수 있도록 고성능 3비트 V낸드를 전 제품군에 탑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 역시 V낸드와 TLC 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내년 제품 생산을 준비 중이다.

/정혜인기자 hjung0404@

통신

기가인터넷 시대 본격화

새로운 CEO 경쟁체제 '주목'

올해 통신업계는 기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유·무선 속도경쟁, 단통법 시행 이후 변화된 통신 서비스 경쟁, 사물인터넷(IoT) 시대 본격화 등 새로운 경쟁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바닥을 친 2014년과 달리 2015년에는 고객 혜택 강화를 목표로 새로운 서비스 경쟁체제로 다시금 재도약할 전망이다.

우선 통신업계에 가장 기대되는 것은 기가 인터넷 서비스의 본격적인 보급화다. 기존 광랜(100Mbps)에 비해 10배 빠른 1Gbps 속도의 기가 인터넷 전국 서비스 상용화로 통신업계는 많은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한 기가 와이파이 서비스로 유·무선 데이터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이동통신 3사는 이달부터 3밴드 LTE-A 서비스를 시작한다. SK텔레콤과 KT는 이미 소비자평가단을 대상으로 서비스에 나섰으며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4 S-LTE' 단말을 사용한 평가단의 의견을 반영해 상용화에 나선다.

황창규 KT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장동현 SK텔레콤 사장(왼쪽부터)

LG유플러스 역시 1월 초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LG유플러스는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4 S-LTE'뿐 아니라 LG전자의 3밴드 LTE-A 특화 단말까지 출시, 경쟁사에 비해 고객 선택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처럼 계속되는 속도 경쟁은 IoT 경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미 이통3사는 IoT를 통신업계의 새 먹거리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갈수록 빨라지는 데이터 속도를 기반으로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연결되는 초연결 시대에 접어들면서 IoT가 핵심 요소로 부각되는 모습이다.

이통3사는 지난해부터 이미 IoT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를 창출하고 있다. 2015년에는 이 같은 서비스를 보다 다양한 산업에 적용, 본격화 한다는 방침이다.

SK텔레콤의 수장이 바뀌면서 새로운 통신업계 최고경영자(CEO) 간 경쟁도 주목할 만하다. 지난해 KT의 수장이 황창규 회장으로 변화한 데 이어 올해 SK텔레콤의 수장이 장동현 사장으로 바뀌면서 이통3사 CEO간 경쟁체제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한편 단통법 시행 이후 통신시장의 변화는 예측불허다. 아직도 정치권에선 단통법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일부 시민단체에선 단통법 폐지론까지 주장하고 있다.

다만 최근 제조사들의 출고가 인하와 이통3사의 지원금 확대로 사용자를 위한 서비스 중심 경쟁으로 바뀌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재영기자 ljy0403@

포털·게임

"모바일 왕관은 나의 것"

올해 포털·게임업계 키워드는 '모바일 쟁탈전'이다.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는 모바일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신규 서비스를 선보인다.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과 다음의 합병으로 강력해진 다음카카오는 출범 초기에 터진 각종 악재를 딛고 본격적인 사업 확장을 펼칠 예정이다. 사업 영역은 뉴스, 쇼핑, 교통, 지도 서비스 등으로 다양하다. 이 가운데 1분기 상용화될 카카오택시는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카카오택시는 택시 기사와 승객을 연결해주는 모바일 앱이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택시는 대표적인 온·오프라인 연결(O2O) 서비스로 다음카카오의 구호 '새로운 연결, 새로운 세상'을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코스닥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선 다음카카오의 새해 매출액이 1조원대, 영업이익은 3000억원을 육박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10월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롤드컵 결승전 현장의 모습. 유료 관객 4만명을 동원하며 e스포츠 역사에 새로운 기록을 남겼다.

안재민 키움증권 선임연구원은 "2015년은 다음카카오가 합병을 마무리하며 신규 사업의 초석을 다지는 시기"라며 "새해에는 그동안 준비했던 다양한 서비스들을 공격적으로 확장할 것이다. 포털 업계가 모바일 중심으로 '변모하는 한해'"라고 전망했다.

네이버도 모바일 시장에 박차를 가한다. 현재 네이버는 다음카카오 출범에도 불구하고 70% 후반대의 압도적인 PC검색 점유율을 지키고 있으며 모바일 메신저 라인의 해외 가입자 증가 추이도 매섭다.

하지만 화려한 외형과 달리 네이버의 모바일 비즈니스 기반은 취약한 상태다. 네이버의 실적 대부분은 PC부문에서 나오며 이마저 국내 매출이 조금씩 떨어지는 상황이다. 네이버 창업자 이해진 의장은 "네이버가 PC에서는 1등일지 몰라도 모바일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고 말하며 모바일 각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네이버는 모바일 쇼핑 사업에 적극 진출한다. 네이버는 최근 모바일 O2O 플랫폼 '샵윈도'를 선보이며 전자상거래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네이버 효자 사업인 라인의 해외 마케팅에도 주력한다.

한편 게임업계에도 모바일은 최대 화두다. 모바일 버전으로 재탄생한 온라인 게임은 물론 국내서 수명을 다한 모바일 게임들이 해외 시장에서 재출시되는 사례도 증가할 전망이다.

/[illegible]

삼성 '갤럭시 노트3'가 공짜폰으로

이통3사, 스마트폰 '지원금 경쟁' 뜨거워

이동통신 3사가 새해를 맞아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3'를 비롯한 인기 단말기 지원금 인상 경쟁에 돌입했다.

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순완전무한 99요금제 기준 갤럭시 노트3의 공시지원금을 기존 25만원에서 출고가와 같은 88만원으로 상향했다. KT 가입자가 가장 선호하는 순완전무한51 요금제를 선택하면 갤럭시 노트3의 공시지원금이 52만원으로, 할부원금은 36만원이 된다. 이 경우 단말 구입시 최대 36만원이 할인되는 슈퍼카드를 발급받으면 무료 수준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이처럼 고가 요금제를 이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렸지만 사실상 갤럭시 노트3는 공짜폰이 됐다.

갤럭시 노트3가 사실상 공짜폰으로 전락할 수 있었던 것은 단말기 출시 15개월이 지나 가능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에 따르면 출시된 지 15개월 이상된 단말기에 대해서는 보조금 상한 범위 예외가 적용된다. 이에 지난 2013년 9월 24일 국내 출시된 갤럭시 노트3는 출시 15개월이 갓 지나 단통법상 보조금 상한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앞서 KT는 지난달 27일부터 최신 단말인 '갤럭시노트 엣지'를 포함한 12개 모델에 최고 84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신년맞이 올레 빅세일'을 진행 중이다. 갤럭시 노트3뿐 아니라 갤럭시S5, 갤럭시S5 광대역 LTE-A, 갤럭시노트3 네오, G3, G3 cat6 등 최신 단말의 기본 지원금도 25만원 이상으로 늘렸다.

SK텔레콤도 1일부터 '갤럭시 노트3'와 '갤럭시S4', '갤럭시골든' 등 단말기의 지원금을 추가 확대했다. SK텔레콤은 갤럭시 노트3의 공시지원금을 최대 72만5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갤럭시S4, 갤럭시골든 등 2개의 단말도 LTE100 요금제 기준 각각 최대 50만원, 40만원으로 지원금을 올렸다. SK텔레콤은 지난달 27일에도 갤럭시S4 LTE-A, 갤럭시 노트2, LG전자 G2, 옵티머스 뷰3(VU3) 등 단말기 4종에 대한 공시지원금을 상향 조정한 바 있다.

LG유플러스도 지난해 12월 24일 가장 먼저 갤럭시 노트3의 공시지원금을 65만원(LTE8 무한대 89.9 요금제 기준)으로 올렸다. 당시 LG유플러스는 갤럭시 노트3 네오, G3 비트 등 단말기의 지원금도 각각 2만~5만원 상향 조정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최근 이통사가 단통법 시행 이후 주춤했던 프리미엄폰에 대한 고객 수요가 늘고 있는 때 맞춰 지원금을 상향하고 있다"며 "한동안 최신 스마트폰에 대한 지원금 인상 경쟁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서두범기자 nutrit@metroseoul.co.kr

이동통신 3사가 최신 스마트폰에 대한 지원금 확대 경쟁에 나서고 있다.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3'에는 최대 88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사실상 공짜폰으로 전락했다. /KT 제공

새해 첫 수출 석유제품 1일 오전 울산항 SK부두에서 SK에너지 석유출하2팀 김윤수 선임매니저가 수출선에 석유제품을 싣는 작업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애플, 안방서 삼성에 당했다

미국 소비자 만족도 지수 2위로

애플이 안방인 미국에서 삼성전자에게 자존심을 구겼다.

애플은 아이폰6, 아이폰6 플러스로 글로벌 시장에서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지만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인기를 넘어서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1일 미국 소비자 만족도 지수(ACSI)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4년 ACSI 휴대전화 제조기업 부문에서 최종 1위에 올랐다. 삼성은 이 조사에서 총 81점을 획득, 애플을 2점 차로 따돌리며 정상을 차지했다. 삼성은 지난해보다(76점-공동 3위) 5점이 올랐으나 애플은 되레 2점이 떨어지며 2위로 내려앉았다.

삼성은 2004년부터 총 4번 ACSI 휴대전화 제조사 1위에 뽑혔지만 스마트폰 보급이 본격화한 2011년부터는 줄곧 2~3위를 맴돌았다. 반면 애플은 이 조사에 참여한 2012년부터 2년간 내리 1위를 차지하다 올해 처음으로 삼성에 1위를 내줬다.

3위는 똑같이 77점을 얻은 노키아와 모토로라에 돌아갔다. LG전자는 73점으로 HTC(75점), 블랙베리(74점)에 밀려 7위에 그쳤다.

애플의 이같은 추락은 날씬한 아이폰에 익숙했던 미국의 소비자들에 화면을 키운 아이폰6, 아이폰6 플러스에 불편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인가젯은 "날씬한 아이폰에 익숙했던 미국의 일부 소비자들이 화면크기를 대폭 키운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에 실망했다는 증거"라면서 "반면 삼성의 갤럭시S5는 고성능 카메라를 탑재하고 방수기능까지 선보이며 미국 소비자들의 마음을 끌었다"고 분석했다.

ACSI는 미국 소비자들이 제품과 서비스를 직접 사용해 평가한 자료를 수치화한 것으로,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소비자 만족도 평가 지표로 꼽힌다.

/정성훈기자 googls

박용만, 최태원 SK회장 선처 요청

박용만(사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일 횡령사건으로 수감중인 최태원 SK 회장의 가석방 내지는 사면을 에둘러 요청했다.

박 회장은 새해 인터뷰에서 "사법절차가 진행되고 있을 때는 그냥 편드는 것 같아 일절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고 전제한 후 "최태원 회장의 경우 간곡하게 다시한번 생각해줬으면 하는 게 솔직한 바람이다. 사법절차를 다 거쳐 판결도 나왔고 처벌을 이행하는 중이다. 마지막 하루까지 꼭 다 채워 100% 처벌을 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박 회장은 "SK그룹의 수장이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처벌을 충분히 받았다는 판단을 좀 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SK가 이번에 최 회장이 나오면 가장 빠른 속도로 바뀔 것 같다. SK는 에너지와 정보통신 첨단이 많다. 공격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 한번 그런 기회를 주는 걸 생각해봤으면 한다"며 "기회를 줘서 국내 5대 기업 중 하나가 아주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시간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ksh@

은행권, 연초부터 점포 통폐합 속도 낸다

신한·국민·우리·하나 리딩뱅크 선점 경쟁 치열

이광구 우리은행장

2015년 은행권의 당면 과제는 '영업력 강화'와 '수익성 개선'이다. 저금리 장기화로 은행의 수익성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어서다.

수익성 개선의 일환으로 연초부터 점포 통폐합 작업에 속도를 낸다. 국민은행은 1월 14개 지점과 3개 출장소, 1개 프라이빗뱅킹(PB)센터 등 모두 18개의 영업점을 통폐합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명동, 목동, 서소문, 청량리 등 서울 전역에 걸쳐 8개 영업점을 폐쇄한다. 부천, 일산 등 수도권에서도 4개 점을 없앤다.

신한은행은 남대문, 목동, 역삼동, 무교동 등 서울과 수도권에 걸쳐 총 6개 지점을 통폐합할 방침이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도 점포 통폐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근 지역에 있어 역할이 중복되는 점포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 지점별 영업 성과에 따라 폐쇄할 방침이다.

농협은행 역시 새해 초부터 점포 통폐합 작업에 들어간다. 농협은행은 수도권과 지방 점포 중에서 수익성이 악화한 영업점 34곳을 새해 초 폐쇄할 방침이다.

특히 은행권에 일대 지각변동이 몰아칠 전망이다.

리딩뱅크 선점을 위한 신한·국민·우리·하나은행이 양보없는 경쟁을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당기순이익을 보면 신한은행이 1조2720억원으로 압도적인 선두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선장이 바뀐 국민과 우리은행이 리딩뱅크 탈환을 선언, 경쟁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1151개의 압도적인 영업점을 운영하고 있는 국민은행은 소매금융 현장영업 중심으로 조직을 탈바꿈하고 있다.

49대 행장에 취임한 이광구 우리은행장도 "강한 은행을 만들겠다"는 새해 포부를 밝혔다. 이 행장은 재임 중 추구할 4대 경영목표로 ▲민영화 달성 ▲강한 은행 만들기 ▲금융 산업 혁신 선도를 제시했다.

더불어 하나은행은 외환은행과의 통합에 성공하면 1위 싸움은 한치앞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하나와 외환은행의 지난 3분기 당기순익을 합치면 1조1970억원으로 1위 신한은행을 턱밑까지 추격했다.

이밖에 주요 은행들이 지속 성장 산업으로 떠오르는 핀테크 사업에 적극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은지 기자 @metroseoul.co.kr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겸 국민은행장

증권업계, 10여곳 M&A 추진 지각변동

WM 고객 선점 위한 각축전 돌입

2015년 국내 증권업계에서는 선두자리를 둘러싼 치열한 경쟁이 예고됐다.

자산 42조원의 초대형 'NH투자증권'이 탄생하면서 업계 새 판도가 짜여진 증권사들의 자리다툼이 한층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자산관리(WM) 부문에서 고객을 선점하기 위한 각축전도 치열해진다.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본사 강당에서 열린 NH투자증권 출범식에서 임종룡(왼쪽 여섯번째) NH금융지주 회장(왼쪽 여섯번째)과 김원규(왼쪽 일곱번째) NH투자증권 사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NH투자증권 제공

우리투자증권과 NH농협증권의 합병을 통해 단숨에 1위 증권사로 거듭난 NH투자증권은 복합점포망의 중심을 은행에서 증권으로 옮기겠다며 본격적인 WM 사업 확대를 공표했다.

기존 온라인 1위인 키움증권도 WM영역으로 보폭을 넓히면서 적극적인 고객 공략에 나섰다.

자산 28조원으로 2위로 내려온 KDB대우증권은 지난해 말 5개월간의 수장 공백 끝에 새 수장을 맞이했다. 중소형사들은 몸집 불리기와 차별화로 생존 전략을 모색할 전망이다.

현대증권 등 아직 증권사 10여곳이 인수·합병(M&A)을 추진하고 있어 올 한해도 증권업계의 지각변동은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상 최악의 불황 터널을 지나고 있는 증권업계는 올 한해도 박스권에 갇힌 코스피와 거래 부진을 극복해야 할 과제를 안았다.

가격제한폭 ±15%→±30% 확대와 공매도 잔고 거래 상위종목 공시제도 도입, 미니선물을 포함한 신상품 개발 등 금융당국의 주식시장 발전방안이 올해 본격 시행되면 정책 효과에 증시 저변이 살아날 기대감도 없진 않다. 국내 기업들의 배당 확대 기대감도 커졌다. /김현정 기자 hjkim1@

부영그룹, 서귀포여고에 '우정학사' 기증

미래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애쓰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제주 서귀포여자고등학교에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를 건립, 기증했다.

이중근 회장은 지난 31일 서귀포시 서귀포여자고교에서 생활관과 다목적기숙사 시설을 갖춘 '우정학사'를 지어 기증하는 준공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현을생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 오태엽 서귀포교육지원청 교육장, 오승식 서귀포여고 교장과 김인실 총동문회장을 비롯해 교사, 학생, 학부모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회장의 아호인 '우정(宇庭)'에서 이름을 붙인 우정학사는 연면적 1332㎡, 지상 4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건물이다. 기숙사 27실과 독서실 등의 교육·편의시설이 들어선다.

이 회장은 "학생들에게 내 집 같이 안정되고 편안한 교육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서귀포여고 학생들이 꿈과 재능을 키우고 실력을 쌓아 지역사회는 물론 우리나라와 지구촌을 이끌어 나갈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학교 측은 그동안 숙원사업이던 기숙사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교육환경 개선과 함께 우수 학생을 유치하고 자덕체를 겸비한 인재 육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선옥 기자 @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왼쪽)이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우정학사' 기증서를 전달하며 악수를 나누고 있다.

카드업계, ICT연계 신성장동력 발굴 '활발'

카드업계는 올해 빅데이터와 핀테크 등 정보통신기술(ICT)과 연계한 신성장동력 발굴과 육성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모바일 기술의 성장과 편리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가 커짐에 따라 카드업계 역시 더 간편하고 세심한 맞춤형 카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신한카드는 코드나인 추진팀을 신설하는 등 카드 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삼성카드 역시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ICT융복합을 추진할 예정이다.

하나카드도 지속성장을 위해 규모의 경제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새로운 ICT 기반 모바일결제 주도권을 강화하는데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위성호 신한카드 사장이 2015년 사업전략회의에서 창의와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 /신한카드 제공

현대카드는 불필요한 부분을 줄이는 등 단순화 작업을 통해 사업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카드 서비스는 고객 편의에 맞춰 더욱 늘어나며 정보 보안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올해 카드 고객 정보 보안을 한층 더 강화하는 한편 간편결제 시스템 등을 통한 편의성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 국내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50만원 이상을 결제할 경우 신분증을 제시해 본인임을 인증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가입 신청서란에 주민번호 작성 부문을 없애 주민번호를 기입하지 않아도 가입이 가능하다. /백아란 기자 @

보험업계, 생보사 온라인판매 확대

보험업계는 지난해 저금리 기조 유지와 텔레마케팅 영업 일시금지, 홈쇼핑·대형독립보험대리점(GA) 채널 규제 강화 등으로 올해 판매채널 다양화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목받는 판매채널은 생명보험사의 온라인판매 확대다.

현재 온라인보험을 판매하거나 준비 중인 업체는 2년 전(5개사)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총 11개로 조사됐다.

생보협회가 공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까지 생보사 총 온라인채널 초회보험료는 17억6700만원으로 지난해 1~3분기(4~12월)보다 106% 성장하는 등 당분간 온라인 시장의 성장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김형석 기자 @

유통업계 업종별 양극화 심화 우려

모바일 마켓·건강기능식·화장품 등 '맑음'
백화점 오프라인 채널·아웃도어 등 '흐림'

지난해 각종 사건·사고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암울한 한 해를 보냈던 유통업계의 2015년 기상도 역시 그리 맑지만은 않다. 업태간 양극화는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글로벌 경기침체 등 국내·외 환경 악화로 국내 경기 회복도 더딜 것이라는 관측이 많기 때문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백화점 업계는 해외 진출과 복합쇼핑몰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먼저 지난해 베트남 하노이에 롯데백화점을 낸 롯데는 내년 베트남 호치민 다이아몬드플라자를 비롯해 2020년까지 해외에 백화점 20개를 추가 출점할 계획이다. 올해 광교와 진주에 아울렛 매장을, 상암에는 복합쇼핑몰을 오픈할 계획이다.

신세계백화점도 올해 문을 여는 김해점을 백화점과 쇼핑몰 장점을 혼합한 하이브리드형 백화점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현대백화점은 김포에 프리미엄 아울렛과 판교에 복합쇼핑몰을 만들 예정이다.

대형마트는 신성장동력으로 창고형 할인매장을 강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편의점 업계는 지난해처럼 다양한 자체 PB 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지난해 큰 신장세를 보였던 온라인과 소셜커머스 시장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터주던 신선 식품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역직구 시장도 공략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식품업계는 1인 가구와 여성의 경제 활동 증가에 따라 간편식 시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슈퍼푸드를 비롯해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 시장 역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음료업계는 탄산수 시장의 고속성장과 함께 생수 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있다.

외식업계는 한식뷔페 인기 등 외식 트렌드의 변화로 상품과 서비스 개발이 치열해질 양상이다. 내년도 주류 시장은 와인과 수입맥주 시장 열풍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패션업계는 모바일 최적화에 힘쓸 것으로 보이며 해외직구를 통한 돌파구 마련, 중·저가를 중심으로 한 상품 구색 확대 등이 점쳐지고 있다. 과열되고 있는 아웃도어의 경우 경쟁에 뒤쳐지는 일부 업체가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라는 조심스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화장품 업계는 면세점이나 해외 온라인 판매를 중심으로 요우커(중국 관광객) 특수를 누리며 호조세를 보일 전망이다.

/정해일기자 rrns@metroseoul.co.kr

롯데센터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신문 사진DB

편의점, 차별화 전략 박차

프리미엄 PB 등장… 너도나도 고급화 경쟁

신세계가 위드미로 시장에 진출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지난해 주요 편의점은 3분기 누적 기존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9% 늘었다. PB 상품 인기도 여전했다.

2015년에는 점포 별 차별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프리미엄 메뉴를 지속적으로 내놓는 한편 메뉴를 통해 타 점포와 차별화하려는 시도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에는 다양한 형태의 편의점이 문을 열었다. 기존 식품이나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공간에서 벗어나 편의시설 등을 갖추면서 생활밀착형 점포를 선보이고 있는 것이다. 점포 수를 늘리면서 경쟁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CU는 거리 공연을 지원하는 '버스킹(하모니)공원점'을 비롯해 책 읽을 여유를 갖춘 '동숭이트점', 여대생을 위해 편의 공간을 마련한 '덕성여대 파워점', 외관점 등 다양한 콘셉트를 점포에 적용했다. 세븐일레븐도 최근 일반 편의점의 4배 넘는 264㎡ 규모의 도시락카페 1호점을 열었다. 또 미니스톱은 신규 매장은 편의 공간을 갖추는 등 카페형 매장을 지속적으로 오픈할 계획이다.

올해는 메뉴 고급화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차별화 메뉴를 내세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수정기자

온라인 쇼핑, 모바일로 재편 가속화

최근 쇼핑 흐름이 모바일로 바뀌고 있는 가운데 2015년에는 PC에서 모바일로 온라인 쇼핑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또 아마존과 알리바바 등 글로벌 쇼핑몰의 국내 진출에 대비하는 관련 업계의 치열한 전략이 두드러질 전망이다. 포화 시장에서 해외 소비자로 눈을 돌리는 업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모바일 "쇼핑 환경까지 바꿨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 쇼핑 시장 규모는 55조200억원으로 전년 보다 11% 증가했다. 이 중 PC는 31조9600억원으로 5.4% 감소한 반면 모바일은 13조1400억원으로 122.3% 늘어났다. 모바일의 이 같은 성장은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다. 협회는 2015년 모바일 시장 규모를 올해 보다 70.9% 증가한 22조46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모바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종합쇼핑몰 간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바일 매출 비중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시장이 치열해지면서 업계는 지난해에는 모바일에 최적화된 쇼핑 환경 구축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큐레이션 쇼핑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기존 소셜커머스뿐만 아니라 G마켓(G9)·11번가(쇼킹딜셀렉시)·옥션(올킬) 등 오픈마켓 업계에서도 이 시장을 눈 여겨보고 있다. 또 '핫 딜' 등 모바일 사용자에게 맞춰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역직구시장 판 커지나

포화된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해외 쇼핑객이 돌파구가 될 전망이다. 이에 역직구 시장을 잡기 위해 업계가 어떤 전략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3년 주요 온라인 쇼핑몰의 역직구 실적은 3700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한데 지난해 중국 해외 직구 시장은 27조원이며 2018년에는 4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중문과 영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던 11번가나 G마켓 외에도 인터파크·현대H몰 등이 글로벌 쇼핑몰을 지난해 하반기에 잇따라 열었다. 올해는 GS샵이 영문·중문 사이트를 오픈하고 테스트 운영 중인 갤러리아몰과 위메프가 사이트 운영을 본격화 한다. /김수정기자 ksj@

'헬로키티 쿤토이 피규어 4종' 증정

롯데리아, 5일부터 불고기버거세트 등 사면

롯데리아(대표 노일식)가 '헬로키티 쿤토이 스페셜 에디션 피규어 4종'을 선보인다.

롯데리아는 오는 5일부터 31일까지 불고기장닌감세트와 데리장닌감세트 구매 고객들에게 헬로키티 쿤토이 피규어 1종을 증정한다.

또 5일 각 매장에서는 오후 6시부터 선착순 10명에게 헬로키티 쿤토이 피규어 4종과 스페셜 진열 박스가 포함된 패키지를 6000원에 판매한다.

이번 이벤트는 디자이너 브랜드 쿤토이와의 협업으로 진행된다. 피규어의 볼 부분은 이동이 가능해 다양한 포즈도 연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1월 한달 간 홈서비스 1만원 이상 주문 고객들에게는 빛을 받으면 좌우로 움직이는 양 모형의 '솔라 흔들 인형'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벌인다. /정해일기자

강강술래 "청양 해 해외여행 경품 쏜다"

양띠 스키장티켓 지참고객 냉면상품권 증정
보양식 곰탕, 와인 1+1 기프트 행사도 진행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청양(靑羊)띠 해를 맞이 1월 한 달간 푸짐한 경품을 증정하는 다채로운 이벤트를 진행한다.

강강술래는 매장을 찾은 고객을 대상으로 엽팜 또는 이름 연락처를 적어 신청하면 추첨을 통해 1등 동남아 해외여행 패키지 상품권(2명·한 1인), 2등 한우 불고기 2호 선물세트(30명), 3등은 냉면상품권 1매(100명) 등을 각각 증정한다.

또 신분증을 소지한 양띠 고객이나 눈썰매장·스키장 티켓을 지참하면 냉면 상품권(1매)을 무료 증정한다.(중복적용 불가)

한우사골곰탕 대용량선물세트(800㎖ 5팩·15인분)도 30% 할인된 3만8800원에 판매하며, 구매 때 소용량선물세트(350㎖ 5팩·10인분 2만2500원)를 선물로 준다.

와인(카르멘 돌찬 쁘룻) 1병을 주문하면 와인(키르멘 블린 카버네쇼비뇽) 1병을 증정하는 1+1 기프트 행사도 함께 벌인다.

오는 31일까지 홈페이지(www.ssullai.com) 온라인 이벤트에 신청 글을 올리면 추첨을 통해 온 가족이 함께 스파·온천사우나를 즐기며 지친 심신을 자유할 수 있는 리솜스파캐슬 천천향 입장권을 준다. 저소음·절전형 진공흡입방식을 사용한 심원은수파의 최고급 온수매트 외(3만원 상당), 도서출판 길벗의 추천도서(스키너의 마지막 강의, 슈퍼걸 스토리)를 준다. /정해일기자

패션업계 소통 강화에 심혈

아웃도어는 매출 부진 극복위해 신소재 개발 차별화

지난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낸 패션업계는 2015년에도 저성장 기조 속에서 무한경쟁에 나서야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패션연구소는 소비자들의 세분화된 취향을 맞춰 스마트한 분야에 집중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최근 모바일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패션업계도 모바일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와의 소통은 물론 쇼핑 결제 체널 역시 온·오프라인을 넘어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위치기반 서비스나 QR코드 같은 IT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마케팅은 이미 많이 사용되면서 점점 더 그 활용폭을 넓혀갈 것으로 예상된다.

패션 스타일은 특정 스타일이 유행하던 것에서 진화해 울·니트와 같은 클래식한 소재를 활용한 편안한 디자인에 실용성과 기능성을 더한 의상이 내세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젊은층 사이에서 옷차림에 전반적인 느낌이나 조화가 중요시되면서 브랜드보다는 아이템 자체에 집중하는 경향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게 패션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제일모직의 로가디스 스마트수트 2.0 와 같이 올해도 IT와 패션산업의 협업이 강조되며, 자본력을 갖춘 중국 기업이 국내 기업을 인수 합병하는 사례는 점점 늘어날 것이다.

새해에는 경쟁에 뒤쳐진 일부 업체들은 시장에서 떨어져 나가는 등 아웃도어 업계도 변화무쌍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마케팅과 디자인에 치중했던 기업들은 신소재 개발과 성능으로 차별화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장기 저성장으로 소비자들이 각자의 삶에 집중하면서 일상의 작은 것에서 행복을 느끼고 교감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지기 시작했다.

이처럼 친구·가족들과 함께 평안한 일상을 보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킨포크(Kinfolk, 자연친화적이고 건강한 심플한식을 추구하는 사회현상)적 삶'이다.

같은 의미에서 팬톤은 2015년 색상으로 마르살라를 선정했다. 포도주빛을 나타내는 이 색상은 마음과 몸, 영혼을 더 풍요롭게 하고 자신감 넘치게 하며 안정을 준다.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식사를 상징하기도 한다.

삼성패션연구소 오수민 연구원은 "2015년은 각자의 삶 속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며 공감·공유할 수 있는 요소의 위시 선택과 이들의 조화로운 융합 방식을 통해 변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기자 ljw@metroseoul.co.kr

더페이스샵 '해피 뉴 이어' 세일

2일부터 최대 50% 할인

자연주의 화장품 '더페이스샵'은 2일부터 베스트셀러 할인 행사를 벌인다고 1일 밝혔다.

2일부터 10일까지 9일간 더페이스샵 전국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품목별로 20~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건조한 피부를 스페셜 케어할 수 있는 베스트셀러인 마스크시트 팩류 전품목에 50%의 높은 할인율을 적용했다. 또 환생고 만능고·천삼송이 등 프리미엄 한방 제품을 비롯해 망고씨드 씨눈·에센스 등 겨울철 필수품인 고보습 영양 제품, 아우라 CC크림·쿠션 스킨셀 등을 30% 할인한다.

디데라의 제품 구매 시에는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 3000점을 제공하고, 더데라피 땡노화 크림 샘플 쿠폰을 증정한다.

50% 할인하는 더페이스샵 마스크시트는 붙였다 떼어내는 편리한 사용법과 탁월한 보습 효과로 연간 약 3000만 장의 판매를 기록하는 베스트셀러다.

신선한 자연의 건강함을 그대로 담은 갈아 만든 마스크시트 라인은 알로에 석류 아보카도 꿀 등 천연 원료를 압착 원료화해 자극 없이 촉촉하고 탄력 피부로 가꿔주는 것이 특징이다.

또 시트 안의 미세한 공기 주머니가 순수 원액 에센스를 가 담은 에어 포켓 젤트 시트를 사용해 건조한 피부에 자연의 보습과 영양 성분을 풍부하게 전달한다고 업계 측은 설명했다. /박지원기자

"중국 화장품 시장 잡아라"

국내선 아모레와 LG생건 간 색조 전쟁

2015년 뷰티업계는 중국을 중심으로 해외시장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시장에서는 기초 제품을 넘어 색조 시장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요우커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면세점 화장품 매출의 경우 정부가 서울 부산 제주에 시내면세점을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만큼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중국 화장품 시장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 또한 높아졌다.

중국 화장품 시장은 지난해 기준 약 23조원에 달해 세계 2위의 규모다. 하지만 화장품 사용 인구는 아직 전체의 10%에 불과하며,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미용 의식이 바뀌면서 시장이 연평균 10%씩 성장하고 있다.

반면에 국내 화장품업체들은 '컬러 시장'에 더욱 공을 들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뷰티업계의 맞수인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각축전이 예상된다. 양사는 기초제품에 반해 규모는 작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각각 색조제품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박지원기자

"올해는 순탄할까"… 제7 홈쇼핑·재승인 촉각

홈쇼핑 업계는 올해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중소기업 전용 상품 판매를 골자로 한 제7홈쇼핑 개국, 일부 업체 채널 재승인 심사 등의 민감한 사안이 논의되기 때문이다.

◆최대 복병 '제7 홈쇼핑'

6월 개국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제7 홈쇼핑의 사업자는 이달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홈쇼핑 업계는 중소기업 상품 전용 홈쇼핑이라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수익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판매수수료를 20% 수준으로 적정한 것에 대해 지나치게 낮다는 반응이다. 경쟁에 밀려 황금 채널에서 벗어나 뒷 번호를 받을 가능성도 높다. 80%를 중소기업 상품으로 편성해야 하는 홈앤쇼핑이나 농수산 전용인 NS홈쇼핑과도 성격이 겹친다.

업계 관계자는 "뒷 번호를 받으면 중소기업에서는 상품을 판매하려고 선뜻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높은 판매수수료를 붙이면 기존 취지에서 벗어나고 낮추면 수익성에 문제가 생겨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는 채널 하나가 더 생기면서 송출수수료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매년 황금 채널을 받기 위해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수수료 협상을 하고 있다. 낮은 번호를 받기 위해 업계 간 경쟁을 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올라갈 것이라는 분석이다.

◆"채널 재승인, 올해도 무사통과?"

5월에는 채널 재승인 심사가 기다린다. 롯데홈쇼핑 NS홈쇼핑 현대홈쇼핑이 심사 대상이다. 그동안 무사통과됐기 때문에 탈락되는 최악의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재승인 기준이 까다로워져 업계는 내심 긴장하는 눈치다. 특히 올해 납품 비리 사건으로 곤욕을 치렀던 롯데홈쇼핑이 탈락의 첫 타깃이 될지 업계가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김수정기자 ksj0215@

의료기기 유통품질관리기준 도입

소비자 안전 강화에 집중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2015년부터 변경되는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분야의 제도를 공개한다고 최근 밝혔다.

먼저 식품 분야에서 바뀌는 주요 내용은 ▲주류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 적용 ▲식품용 기구 표시제도 도입 ▲판매단 햄버거 피자 등 영양표시 의무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자 과태료 처분 강화 ▲축산물 영업시설기준 완화 등이다.

특히 주류 표시관리 기준이 변경돼 내년 1월부터는 주류에 표시되지 않았던 모든 원재료를 표시하게 돼 소비자의 알권리가 확대된다. 또 소비자가 올바르게 구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용으로 제조·수입된 식기와 일회용 장갑 등에도 '식품용 기구'라는 문구나 마크를 반드시 황부해야 한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방사성 의약품·의료용 고압가스 의약품 제조의 품질관리기준(GMP) 적용 ▲인체조직 수입승인제·추적관리 의무화 ▲한약제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전면 의무화 등이 바뀐다.

방사성 의약품과 의료용고압가스 제조업체의 GMP 준수가 7월 의무화된다. 한약제 GMP가 1월부터 전면 실시돼 GMP업체에서 생산된 한약제만 한의원과 한방병원 등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잠재적 위해 우려 원재료를 함유한 의료기기 유통이 금지되고 의료기기 유통품질관리기준이 도입된다. 아울러 인체청결용 물티슈가 화장품으로 분류돼 이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의약외품 제조관리 업무를 하는 자격도 확대된다. /윤재웅기자 hmu@

개정 도서정가제, 시장 영향 관심

올해는 개정 도서정가제가 출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지난해 11월 21일부터 개정된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면서 1년 6개월이 지난 구간과 초등학생 학습 참고서, 실용서 등이 정가제 대상에 포함됐으며 직·간접 할인을 포함 19%였던 할인율이 15%로 축소됐다.

이에 대한 영향으로 시행 이후 한 달간 온라인 서점의 도서 판매량은 10% 내외 가량 줄어들기도 했다.

쿠폰·할인 등 혜택을 주던 온라인 서점이 오프라인 보다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예상이 맞아떨어진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직까지 독서 인구가 줄었다고 단정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개정 도서정가제의 영향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6개월은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할인폭이 줄어 소비자가 체감하는 도서 가격이 오른만큼 이에 대한 업계의 대응책도 나올 전망이다. 이미 예스24의 경우는 리뷰·한줄평 리워드, 중고도서 바이백 서비스 등 혜택을 내놓기도 했다.

재정가 도서가 체감 책값 상승률을 낮출 수 있을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정가제를 개정하면서 정부는 발행 1년 6개월이 지난 도서는 출판사가 정가를 변경해 판매 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재정가 도서가 시장에 제대로 풀릴 경우 가격이 종전 수준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관련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또 성인 연간 종이책 독서량,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등이 감소 추세에 있어 두 지표가 2015년에 저점을 지나 회복세를 보일지도 출판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김수정기자 ksj0215@

올해도 성장 이어갈 여행업계

해외여행 계속 늘어날 듯

올해도 여행업계의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2009년부터 꾸준히 늘어난 해외여행의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엔저 현상이 당분간 이어지고 저가 항공사의 신규 취항지와 노선 확대, 그리고 여행사와 항공사의 얼리버드 예약 혜택의 다양화가 우리 국민의 여행 심리를 끊임없이 자극하기 때문이다. 특히 엔저로 인한 일본관광의 수요가 올해보다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올해 휴일은 지난해보다 이틀 줄어든 66일로 연중 여행객이 고르게 분포하고 개인의 취향에 따른 자유여행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3040 남성의 수요를 잡기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준비 중이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모바일 예약 트렌드가 더욱 대중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적극적인 마케팅과 홍보를 할 전망이다. /황재용기자

체육시설 안전 기준 강화된다

창조관광육성펀드 조성

올해부터 체육시설과 스키장 등의 안전 기준이 더 강화된다. 또 창업 초기 관광기업과 중소 관광사업체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하는 민간금융조달 체계가 마련된다.

먼저 화재와 같은 재난에 대비해 체육시설업소(등록·신고 체육시설업) 내에 피난안내도를 부착 또는 피난안내를 하도록 했다.

스키장의 안전 시설 기준도 구체화됐다. 안전망 설치는 지면으로부터 1.8m(설면으로부터 1.5m 이상) 이상, 안전매트 두께는 50㎜ 이상이 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안전요원의 수도 증원토록 했다.

한편 수영장 탁도기준은 2.8NTU에서 1.5NTU로 강화됐으며 중금속(비소)·수은·알루미늄) 관련 기준도 마련했다.

중소 관광사업체를 위한 지원 체계도 마련된다. 창조관광육성펀드를 조성·운용해 유망 관광 기업에 대해 민간자금의 투자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모태펀드 운용기관인 한국벤처투자에 모태펀드 관광계정을 신설해 관광기금 130억원을 출자할 방침이다. /김수정기자

라바와 함께 영어공부?

서울 능동 어린이회관에서 열리고 있는 '2nd 못말리는 라바의 영어체험전'(www.larvaplay.com)이 화제다.

지난해 여름 첫 선을 보인 라바 영어체험전은 토종 캐릭터 '라바'와 국내 영어전문교육기업 정상JLS의 우수한 영어 콘텐츠가 만나 아이들이 놀면서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제작된 테마형 체험 교육공간이다.

특히 유아에서부터 초등학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맞춤형 놀이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13가지 종류의 미션 스티커를 받으며 자연스럽게 영어를 익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 단체관람이 열리고 있는 능동어린이회관에는 어린이 눈썰매장도 함께 운영되고 있으며 40% 할인된 가격으로 패키지상품도 구매할 수 있다. /황재용기자

'메트로신문' 독자 위한 특별한 선물

쉐라톤 인천 호텔 '메트로 윈터 패키지' 선봬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쉐라톤 인천 호텔은 '메트로신문' 독자를 위해 합리적인 가격대의 분위기로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줄 객실 패키지 '메트로 윈터 패키지'를 선보였다.

2일부터 8일까지 단 7일 동안 예약할 수 있는 이번 패키지는 다음달 28일까지 이용 가능하며 전화(032-835-1804) 혹은 이메일(reservation.incheon@sheraton.com)로 예약하면 된다.

패키지는 디럭스 시티뷰 룸에서의 1박과 세계 각국의 요리를 한 곳에서 맛볼 수 있는 뷔페 레스토랑 '피스트'에서의 2인 조식을 포함하고 있다. 가격은 17만원(세금·봉사료 별도)으로 성수기인 설날과 발렌타인 데이 등에도 예약할 수 있다.

호텔은 송도국제도시 중심부에 위치한 LEED 인증 친환경 호텔로 강남과 50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편리한 접근성과 도심에서 벗어나는 자유로움을 동시에 선사해준다. /황재용기자

metro entertainment E

"온순한 양처럼 평온한 한 해 되세요"

2015년 을미년 '청양'의 해가 밝았다. 온순한 양처럼 우리 곁에서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을 안겨준 양띠 스타들이 새해를 맞이해 메트로신문 독자들에게 인사말을 전해왔다.

/김숙희, 전효진 한별희기자 sookim@metroseoul.co.kr

◆ 소녀시대 서현

새해에는 즐겁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고 원하는 것들 이루어가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저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모든 면에서 좀더 깊이 있고 성숙한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요. 몸은 바쁘지만 마음은 여유로운 보람찬 한 해를 보내고 싶습니다.

◆ 샤이니 키

건강하시고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양띠들에게 다방면에서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양띠처럼 풍성한 한 해 보내세요!

◆ 제국의 아이들 박형식

KBS2 주말극 '가족끼리 왜 이래'의 달봉이 박형식입니다! 메트로 신문 독자 여러분들, 2015년에는 좋은 일들 많이 생기시기를 저 양띠 박형식이 양의 기운을 듬뿍 담아 응원하겠습니다.

◆ 씨엔블루 강민혁

지난해는 '캔트 스톱'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고 공연을 통해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2015년에도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 뵙겠습니다.

◆ 양동근

메트로신문 독자 여러분, YDG~ 양동근입니다. 올해도 지난해처럼 뮤지션으로 음반도 내고 연기도 좋은 작품을 만나 더욱 발전한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요. 팬 여러분과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 씨엔블루 이정신

2014년은 저의 다양한 매력을 보여드릴 수 있었서 의미가 큰 해였습니다. 2015년은 청양의 해인 만큼 양띠인 저도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온순한 양처럼 서로 더 많이 배려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진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 공유

올해 초까지 영화 '남과 여' 촬영이 끝나면 바로 '부산행' 촬영까지 쉴 틈 없는 한 해를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을미년 양의 좋은 기운을 받아 촬영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영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 김슬기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청양의 해에 더욱 열심히 달려보려고요. 영화, 드라마, 뮤지컬 등으로 더욱 굵직한 모습 많이 보여드릴게요.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열심히 할테니 지켜봐주세요!

◆ 수애

지난해 다 이루지 못했던 일들 올해는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저도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릴테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 FT아일랜드 이재진

2015년에는 FT아일랜드만의 확실한 색깔이 묻어나는 앨범이 나올 테니 많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월부터 해외 투어로 전 세계 팬을 만날 생각인데 많이 설레고 떨리네요. 독자 여러분도 올해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 송재희

메트로신문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5년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 니콜

모두 새해를 힘차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소중하게 아끼면서 좋은 일들도 많고 행복함이 가득 하셨으면 좋겠어요. 새해에는 팬을 더 많이 만나고 싶고 활동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니콜이 되겠습니다.

지상파·케이블 새해에도 격전 예고

2015년 주목할 드라마

◆ 수목드라마 재회 커플

영화 '역린'(2014)의 흥행을 이끈 배우 현빈과 한지민은 SBS 새 수목극 '하이드 지킬, 나'로 다시 만난다. '하이드 지킬, 나'는 웹툰 '지킬 박사는 하이드씨'가 원작이다. 한 남자의 전혀 다른 두 인격은 지닌 구서진·로빈(현빈)과 사랑이 빠진 여자 장하나(한지민)의 삼각 로맨스를 다룬 로맨틱 코미디다. '피노키오' 후속작으로 오는 21일 첫 방송된다.

2013년 KBS2 '비밀'로 호흡을 맞춘 지성과 황정음은 MBC 새 수목극 '킬미, 힐미'로 재회한다. 오는 7일 첫 방송되는 '킬미, 힐미'는 다중인격장애를 앓는 재벌 3세와 정신과 의사의 로맨스, 이를 둘러싼 미스터리를 다룬 작품이다. 지성은 7개 인격을 가진 재벌 3세 차도현 역을 맡았다. 황정음은 차도현의 비밀 주치의인 정신건강의학과 레지던트 1년 차 오리진으로 분했다. 자신의 환자인 차도현과 비밀스러운 사랑을 한다.

◆ 사극 퓨전vs정통

배우 장혁·오연서는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로맨스 픽션사극 장르의 MBC 새 월화극 '빛나거나 미치거나' 촬영에 한창이다. 고려 초기를 배경으로 저주받은 운명이지만 점차 자신이 가진 왕재로서의 재능을 깨달아 가는 왕소(장혁)와 발해 공주 신율(오연서)의 사랑 이야기를 담는다. '오만과 편견' 후속으로 이달 중순 방영될 예정이다.

지상파 3사의 드라마는 힘든 시기를 보냈다. 종편·케이블 드라마의 상승세에 위협 받았기 때문이다. 올해는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시청자의 다양한 취향을 충족시킬 드라마를 대거 준비 중이다. 종편·케이블 드라마는 지난해의 열기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19금 예능'에서 케이블 드라마 강국으로 완전히 모습을 바꾼 tvN은 드라마 '미생'의 열기를 끌고 가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김학철 전문기자 kmc0304@metroseoul.co.kr

지상파 드라마, 재회 커플·사극 세분화로 시청자 공략
케이블 tvN, 다채로운 라인업·시즌제 부활로 인기 견인

김상중과 강태우는 KBS1 대하드라마 '징비록'을 통해 지난해 '정도전'이 일으킨 정통 사극 열풍을 이을 예정이다. 김상중은 '징비록'의 저자로 임진왜란 7년 동안 도체찰사와 영의정을 지내면서 실질적으로 전란을 지휘한 서애 유성룡을 연기한다. 김태우는 명민하지만 우유부단한 성격으로 콤플렉스를 지닌 선조 역을 맡았다. 2월 14일 첫 방송된다.

◆ tvN 다채로운 라인업

'미생'으로 케이블 드라마 역사의 새로운 획을 그은 tvN은 2015년 새 금토드라마인 최강희·천정명 주연의 '하트투하트'로 도전장을 내민다. '커피프린스 1호점'을 연출한 이윤정 PD의 tvN 데뷔작이기도. 원더걸스 출신 안소희와 '미조' 이세윤까지 합세해 독특한 조합을 예상케 한다.

엄태웅·이시영의 '일리있는 사랑' 후속작으로는 유이·최우식의 '호구의 사랑'이 방송된다. 유현숙 작가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이 드라마는 무거운 일리(이시영)의 사랑을 동등하는 호구(최우식)의 사랑으로 담백감시켜 시청자들에게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시즌제 드라마의 부활도 기다리고 있다. '막돼먹은 영애씨'는 올해로 시즌14를 맞이한다. 주인공 김현숙이 실제로 결혼 후 맞는 첫 시즌이다. '1인 가구를 위한, 1인 가구에 의한' 드라마 '식사를 합시다'도 두 번째 시즌을 준비 중이다.

2015년 가요계 전망

지난해에는 이선희를 시작으로 god, 서태지, 김동률, 유희열(토이) 등의 가수들이 오랜 공백 끝에 새 앨범을 발표해 음악 팬들을 기쁘게 했다. 2015년에도 1990~2000년대를 아울렀던 '선배님들'이 대거 컴백을 예고했다.

'최장수 아이돌 그룹' 신화는 최근 12집 앨범 재킷 촬영을 마치고 컴백 초읽기에 돌입했다.

신화는 당초 지난해 12월에 컴백할 계획이었으나 시기를 약간 늦춰 다음 달에 새 앨범을 발표하게 됐다. 이번 앨범은 지난 2013년 정규 11집 '더 클래식' 이후 약 2년 만에 발표하는 정규 앨범이다.

신화의 소속사 신컴엔터테인먼트는 "멤버들이 논의 끝에 컴백 시기를 2월 말로 최종 확정했다"며 "이번 앨범에 대한 멤버들의 열정과 음악적 욕심이 굉장히 남다르다. 팬들 관심도 높은 앨범은 기대해도 좋은 것 같다"고 전했다.

'1세대 아이돌' 젝스키스 출신 듀오 제이워크(장수원·김재덕)도 이달 말 새 앨범을 발표한다. 최근 '로봇연기'로 예능가 블루칩으로 떠오른 장수원은 음악에서만큼은 진지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각오다. 새 앨범에서 제이워크는 달콤하고 부드러운 느낌의 곡들을 들려줄 계획이다.

새해에도 계속되는 컴백 러시

신화·제이워크·김현정 등 새 앨범 발표

최근 MBC '무한도전' 특별기획전 '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토토가)'로 오랜만에 얼굴을 비춘 김현정도 가요계에 복귀할 예정이다.

김현정은 오는 6월을 목표로 새 앨범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정은 지난 2011년 디지털 싱글 '1분 1초'를 발표한 뒤 약 4년 동안 새 앨범을 발표하지 않았다. 새 앨범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김현정의 파워풀한 가창력이 돋보이는 댄스곡이 주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에서 왕성한 활동 중인 가수 채연도 컴백 러시에 합류한다. 데뷔 11주년을 맞은 채연은 다음달 싱글 앨범을 연이어 발표할 예정이다. 채연의 새 앨범은 지난 2010년 미니앨범 '룩 앳' 이후 약 5년 만이다. /유하나 기자 hanakim@

믿고 보는 감독·시리즈 속편 대기

2015년 극장가

한국영화, 스타 감독 신작으로 기대감
할리우드, 인기 프랜차이즈 대거 개봉

영화 팬들의 마음은 일찌감치 2015년을 향하고 있었다. 스타 감독들의 신작, 그리고 인기 프랜차이즈 시리즈의 속편들이 줄줄이 대거 개봉하기 때문이다. 2015년을 뜨겁게 달굴 영화들을 미리 살펴봤다.

◆ 류승완·최동훈·이준익 그들이 돌아온다

2015년 한국영화 최고의 관심사는 바로 스타 감독의 귀환이다.

'부당거래'와 '베를린'으로 흥행 연타석 홈런을 날린 류승완 감독은 '베테랑'으로 돌아온다. 눈앞에 있어도 잡을 수 없는 놈을 쫓는 베테랑 광역수사대의 이야기를 그리는 영화다. 황정민이 광역수사대의 원칙주의자 형사 서도철 역을 맡아 '부당거래'에 이어 류승완 감독과 재회했다. 유아인은 서도철이 쫓는 재벌 3세 조태오로 변했다.

'도둑들'로 1000만 감독이 된 최동훈 감독은 '암살'로 올 여름 극장가를 찾는다. 1930년대 상하이와 경성을 배경으로 친일파 암살작전을 위해 모인 암살자들과 임시정부요원, 그리고 청부살인업자의 이야기를 그리는 영화다. '도둑들'로 최동훈 감독과 만났던 전지현·이정재·오달수 그리고 하정우·조진웅이 가세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쥬라기 월드

지난 2013년 '소원'으로 성공적으로 연출에 복귀한 이준익 감독은 송강호·유아인·문근영과 함께 오랜만의 사극 영화인 '사도'로 돌아온다. 아버지에 의해 뒤주에 갇혀 8일 만에 죽음을 맞이한 사도세자를 재조명하는 작품이다. 송강호가 영조를, 유아인이 사도세자를 연기한다. 이밖에도 강제규 감독의 '장수상회', 곽재용 감독의 '시간이탈자', 민규동 감독의 '간신' 등이 올해 개봉을 앞두고 있다.

◆ '어벤져스'부터 '스타워즈'까지

할리우드에서는 인기 프랜차이즈의 속편들을 선보인다. 오는 4월에는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이 개봉한다. 지난 2012년 개봉해 국내에서도 707만 관객을 모은 '어벤져스'의 속편이다. 아이언맨·캡틴 아메리카·울버·토르 등 마블 코믹스 히어로들이 활약을 담은 영화로 올해 최고의 기대작 중 하나다. 특히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서울에서 촬영을 진행해 관심이 높다.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14년 만에 부활하는 시리즈도 있다. '쥬라기 공원'의 속편 '쥬라기 월드'다. '쥬라기 공원'을 탄생시킨 스티븐 스필버그가 제작 총괄을 맡았다. 메가폰을 잡은 콜린 트레보로우 감독은 "'쥬라기 월드'는 공상과학도 아니고 공포나 순수한 액션 어드벤처도 아니며 단순하게 웃기거나 슬프기만 한 영화도 아니고 로맨틱하기만 한 영화도 아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영화다"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영화는 오는 6월 개봉 예정이다.

영화 팬들이 2015년을 기다리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스타워즈' 시리즈가 돌아오기 때문이다. 올 겨울 개봉하는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는 10년 만에 다시 찾아오는 '스타워즈' 시리즈이면서 새로운 3부작의 시작을 알리는 작품이다. J.J. 에이브럼스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베일에 가려진 상태다. 다만 오리지널 3부작의 주연진인 마크 해밀, 해리슨 포드, 캐리 피셔 등이 출연해 원작 팬들의 기대감이 높다.

/장성호기자 sehang@metroseoul.co.kr

베테랑

'SBS 연기대상' 최우수상 기준은?

박유천·황정음, 연기력 논란에도 받아 비판

그룹 JYJ 멤버 박유천과 배우 황정음이 '2014 SBS 연기대상'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한 가운데 일부에서 연기력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경쟁 후보들의 연기력이 상당한 가운데 시청률과 시상식 출석에 따라 상을 나눠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박유천은 지난달 31일 삼성동 코엑스 D홀에서 열린 '2014 SBS 연기대상'에서 드라마 '쓰리데이즈'로 미니시리즈 부문 남자 최우수 연기상을 받았다. '내겐 너무 사랑스러운 그녀' 정지훈, '신의 선물-14일' 조승우, '펀치' 사랑이야' 조인성을 제치고 이룬 성과였다.

황정음

박유천은 '쓰리데이즈'에서 대통령 경호관 한태경 역을 맡았다. 방송 당시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기록하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화제가 됐다. 그러나 연기력에 있어서는 잡음이 있었다. 과묵함 이상의 감정을 보여주지 못했다. 주인공의 단조로운 연기에 극 전개가 탄력 받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배우 황정음은 이날 '끝없는 사랑'으로 장편드라마 부문 여자 최우수연기상을 받았다. '기분 좋은 날' 박세영, '세 번 결혼하는 여자' 엄지원, '세 번 결혼하는 여자' 이지아와 경합을 벌였다.

'끝없는 사랑'은 화려한 캐스팅과 연출진이 포진했음에도 조기 종영이라는 굴욕을 겪었다. 방향 잃은 주제 의식이 작품의 흥행에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보여줬다.

황정음이 분한 서인애는 바닷가 마을에 살다가 교도소를 드나들며 여배우로 데뷔하고 정계에 입문해 성공하는 비현실적인 인물이었다. '믿고 보는 배우'라는 호평도 있다. 그러나 전작과 비슷한 연기에 "눈물만 많이 흘리면 연기를 잘하는 것이냐"는 혹평도 있었다.

매년 연말 시상식은 '출석상' '나눠주기' 등으로 시청자의 비판을 받아왔다. 성적 위주가 아닌 공감되는 수상이 2015년 연말에는 이뤄지길 바라본다.

/권혜진기자 jeenh@...

박유천

이정재·임세령 '교제 인정'

"아이들 어머니, 조심스럽다"

배우 이정재(왼쪽 사진)가 대상그룹 임세령(오른쪽) 상무와의 교제를 공식 인정했다.

1일 이정재의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두 사람은 최근 친구 이상 감정으로 조심스럽게 만남을 시작했다.

소속사 측은 "두 사람은 오랜 우정의 친구 사이에서 최근 조심스럽게 마음이 발전한 만큼 연인 관계로 인정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다"며 "2010년부터 열애설에 휩싸이기는 했지만 최근까지는 서로의 힘든 일을 들어주는 우정 그 이상이 아닌 친구 사이였음은 분명히 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정재는 연예인으로 사생활이 대중으로부터 관심을 받는 것은 일의 일부이고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임세령의 경우엔 일반인이며 특히 아이들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자신으로 인해

임세령씨의 가족들이 상처를 받거나 사생활이 침해되는 것만큼은 막아 주고 싶다는 마음을 간곡히 전해왔다"고 덧붙였다.

이정재와 임세령은 2005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돼 친분을 유지해왔다. 지난 2010년부터 두 차례의 열애설과 한 차례의 결혼설에 휘말린 바 있다. 당시 두 사람은 친구 관계라며 열애설을 부인했다. 2010년 4월 불거진 동반 여행에 대해서도 "사업 구상차 출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정재와 교제 중인 임세령 상무는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의 장녀다. 지난 1998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결혼했으나 2009년 2월 이혼했다.

/권혜진기자

'일본군 장교 관사'의 운명은?

권기봉의 도시산책 <108>

서울 상암동은 2002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본격 개발되기 시작한 지역이기에 역사의 흔적이 없을 거라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수많은 시민들이 찾는 하늘공원과 노을공원만 해도 현대 생활문화사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공원 지하에 묻혀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가 그것이다.

두 공원은 지난 1978년부터 93년까지 이용됐던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를 흙으로 덮어 만든 '인공 산'이다. 15년 동안 쌓은 양이 무려 8.5톤짜리 트럭 1300만 대분에 달했다.

북동쪽으로 조금 떨어진 상암월드컵파크10단지 아파트 옆의 부영아근린공원에서는 일제강점기의 흔적도 찾아볼 수 있다. 1930년대에 지은 위관급 장교들의 숙소, 즉 '일본군 관사'가 그것으로, 2005년 대규모 택지를 조성하면서 22개 동의 존재가 확인됐다.

다만 일본군 관사를 향한 시민들의 시선은 하늘공원이나 노을공원의 경우와 사뭇 달라 보인다. 쓰레기매립지는 시민들이 찾는 공원으로 거듭났지만 일본군 관사를 향한 원성은 높아만 가고 있다. 문화재청이 "일제의 아시아 침략을 여실히 보여주는 문화유산으로 보존 가치가 있다"며 22개 동의 관사 가운데 2개 동을 원래 위치에서 130미터 떨어진 지금의 자리에 복원하고 근대문화재 등록예고를 했으나, 근처 주민들이 "왜 굳이 부정적인 역사 흔적을 남겨두느냐. 자랑스럽지 않은 역사 흔적을 문화재라며 보호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일제의 침략을 경험했던 나라라고 모두 같은 행태는 아니다. 가까운 중국만 해도 일제의 폭력이 응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뤼순감옥을 근현대 역사박물관으로 활용하고 있고, 뤼순 곳곳에 산재한 일제의 승전탑들도 부수지 않고 보존하고 있다. 부정적 역사가 서려있는 유산을 보존하고 역사교육의 장으로 삼음으로써 다시는 같은 상황을 초래하지 말자는 의지를 되새기려는 것이다.

상암동의 일본군 관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주민 반발도 심하고 찾는 이도 없는 일본군 관사 앞에서 역사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본다.

/'다시, 서울을 걷다' 저자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칸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5		9	6	4	3
								8
	9				2			
7			4			5	2	
		6				4		
	2	4			8			7
			8				5	
2								
9	5	8	7		1			

	1		8	6			9	
		3						7
7	8		5		9			
				8		7		
8	3	5				9	4	1
		7		4				
			4		1		3	6
2						4		
	4			5	8		1	

스도쿠 정답

문제제공 - 보누스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취업 준비 중인데 안풀려 답답해요
성급함 버리고 차분히 기다리세요

두분안생 남자 88년 11월 17일 음력 저녁 9시 10분

Q 올 8월에 대학 졸업을 해서 취업준비도 많이 하고, 여기저기 취업하러 알아보고 있는데 계속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전공은 전자공학입니다. 최종 면접까지 간 곳도 많고 될 듯 하다가 안돼서 무척 답답합니다. 취업 운과 재물 운이 궁금합니다. 남자 88년 음력 11월 17일 저녁 9시 10분인데 언제쯤이면 취업 할 수 있을까요? 취업 운과 제 사주에 재물 운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A 사주 학(學)에 간여지동(干與支同)의 용어가 있는데 팔자를 해보면 남에게 예속되기를 싫어하고 군림 하려는 기질이 있으며 자수성가할 수 있는 타입이라 어기지게 되므로 한 직장에 오래 다닐 것 같지 않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운이 스며여 있기에 될듯하다가 면접에서 안 되는 경우도 겪습니다.

직업이나 직장 운과 사주팔자와의 관계는 생월생시에 따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외에도 사주팔자 속에는 수많은 부분이 함께 공존하고 있으므로 평생의 길흉화복(吉凶禍福)을 잘 갖지는데 아주 중요한 바탕이 됩니다.

취업운도 자신의 강한 의지로 성취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타고난 팔자는 이를 거스르기가 힘들기도 하며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팔자를 타고난 사람이 무조건 불행하게만 살아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팔자를 깨달아서 자신에게 들어오는 것을 피하거나 '병이 있으면 약도 있으니' 겸손함을 바탕으로 다시 심기일전하십시오.

2015년 2월~4월 운기는 청기하게 열려집니다. 주관이 확고하고 고집이 있는데 갑목(甲木)사주가 겨울에 태어났으므로 경금(庚金)과 정화(丁火)라는 오행이 있으면 원하는 일이 잘 되는데 그때는 운이 풀리는 시기이니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단점을 고치고 당장 취업의 어려움에 연연하지 말고 공손한 예의로 준비를 하세요.

생일(生日支)에 합장 돼 있는 식신(食神 대)가 생하는 기운으로 식복을 나타냄)과 편재(偏財 내가 극하는 오행으로 시위를 나타내거나 부정기적인 재물의 취득)가 있으므로 자신의 내면에 충실하여 주체적으로 궁리하고 연구하여 성과와 재정적인 성취를 보게 됩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1월 2일(음 11월 12일) 김학수 인생상담

쥐: 48년생 술자리시 같은 소리 금물~ 60년생 팔전한 마음 안겨된다. 72년생 황당한 뒷로 때문에 부글부글~ 84년생 어려지면 가능성 발견한다.

소: 49년생 위기가 기회 된다. 61년생 오너와 부하의 괴리 막는 길 찾아라. 73년생 술자리가 길면 실수한다. 85년생 여행 시간 줄이고 일찍 귀가하라.

호랑이: 50년생 우울할 땐 장터 나가보라. 62년생 문서 몰래 애로가 생긴다. 74년생 배우자와 충돌하지 않도록 조심~ 86년생 웃으며 이침표 찍는다.

토끼: 51년생 가족과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라. 63년생 정답은 가까운데 있다. 75년생 가족 도움에 막힘 일 술술~ 87년생 약속을 지키면 얻는 게 많다.

용: 52년생 실리보단 명예가 우선이다. 64년생 일이 잘 될 때 가속페달 밟아라. 76년생 궁핍이 통한다. 88년생 기회가 왔으니 적극 움직여라.

뱀: 53년생 어려우면 잠깐 쉬었다 돌아가라. 65년생 아픔이 비워야 고민이 끝난다. 77년생 꿈수 부린 계획은 필살~ 89년생 불리할 때 선을 긋는 것이 필요하다.

말: 42년생 한 우물 파면 승산 있다. 54년생 좋은 일 생기기 전에 군불부터 때라. 66년생 고전은 하나 희망은 발견한다. 78년생 심사 메시지 진의 파악 신경 써라.

양: 43년생 변화는 신중할 것. 55년생 진실은 어디서든 통한다. 67년생 퀴에를 건 게임은 뒷부로 미라. 79년생 적잖한 [illegible]은 가뭄에 단비가 내린 격이다.

원숭이: 44년생 갈 곳이 많아 바쁘다. 56년생 호사가들이 떠드는 이야기는 무시하라. 68년생 최선 다하면 원하는 것 얻는다. 80년생 물과 마음 더욱 낮춰라.

닭: 45년생 길잡이 역할에 충실할 것. 57년생 묵은 빚 갚사 생긴다. 69년생 자신의 아쉬운 꿈 자녀에 요구하지 마라. 81년생 꽈 발휘할 기회가 온다.

개: 46년생 자녀가 웃음보따리 선물한다. 58년생 꼬리 내릴 땐 확실히 내려라. 70년생 상사에 제도 될거늘 일 생긴다. 82년생 삶의 깐깐한 상사 때문에 부글부글~

돼지: 47년생 수평적 소통에 신경 써라. 59년생 복덩이가 굴러 들어 온다. 71년생 짜다 소리 들더라도 근검절약할 것. 83년생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MLB 한국인 삼총사 시대 열리나

추신수, 부상 극복 재도약 선언
류현진, 200이닝 투구 달성 도전
강정호, 장타력으로 빅리그 장악

강정호 추신수

2015년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는 한국인 삼총사의 시대가 막을 연다.

맏형 추신수(33·텍사스 레인저스)를 비롯해 왼손 투수 류현진(28·LA 다저스), 피츠버그 파이리츠와 입단 조건을 조율 중인 강정호(28)가 새로운 한국인 빅리거 삼국지를 쓸 계획이다. 강정호가 포스팅 시스템(비공개 경쟁입찰)에서 가장 높은 액수를 적어 독점 협상권을 따낸 피츠버그에 입단한다면 미국 동부(강정호), 중부(추신수), 서부(류현진)에 각각 한국인 메이저리거가 포진하게 된다.

추신수는 지난해 텍사스와 7년 동안 1억3000만 달러의 거액으로 자유계약선수(FA)로 계약을 맺고 새 출발을 다짐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부상으로 타율 0.242, 홈런 13개, 타점 40개의 부진한 성적으로 시즌을 마감했다. 2014년 정규리그를 일찍 감치 마친 그는 시즌 내내 괴롭혀 온 왼쪽 발목, 왼쪽 팔꿈치 수술을 받았다.

2015년 추신수는 빅리그 데뷔 10년째인 만큼 재도약을 다짐한다. 현재는 귀국도 하지 않고 미국 텍사스 주 알링턴의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1주일에 4일씩 재활 훈련을 받고 있다. 그는 "다치지만 않는다면 내 기본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고 각오를 다졌다.

2년 연속 14승을 거둔 류현진은 올해 200이닝 투구 달성에 도전한다. 2013년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그는 변화무쌍한 체인지업으로 주목 받았으며 2014년에는 고속 슬라이더로 타자의 눈을 현혹했다.

올해 류현진이 신경 쓸 것은 바로 부상 방지다. 지난해 잘 나가던 순간 왼쪽 어깨, 엉덩이 근육 통증으로 세 차례 부상을 겪었기 때문이다. 류현진은 "선발 투수로서 부상을 피해 200이닝을 달성하고 체인지업의 위력을 더욱 높이겠다"고 밝혔다.

강정호는 장타력을 지닌 내야 요원으로 빅리그의 시선을 끈다. 현재 역대 아시아 야수 중 세 번째로 높은 포스팅 금액(500만2015 달러)을 받고 빅리그 진출을 타진 중이다.

그는 지난해 한국 프로야구에서 수비 능력이 우선시되는 유격수로는 꿈도 꾸지 못할 홈런 40개, 타점 117개, 타율 0.356이라는 화려한 공격지표를 남겼다.

피츠버그에 입단하면 유격수를 떠나 2루수, 3루수 요원으로 기용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강정호가 자존께이 할 부분도 수비보다 공격이다.

한국에서 홈런 40개를 터뜨린 실력을 메이저리그에서도 절반만 보여줄 수 있다면 강정호 개인은 물론 팀도 대성공을 거둘 확률이 높다. 다만 스프링캠프에서의 주전 경쟁, 한국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의 적응 등이 넘어야 할 걸림돌이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류현진

을미년 밝힐 양띠 스포츠 ★는?

지소연·이정협·박한이·전광인 활약 기대

2015년 을미년 양띠 해를 맞아 남다른 각오를 다지고 있는 양띠 스포츠 스타들이 있다.

여자 축구계에서 '지메시'로 불리는 지소연(첼시 레이디스)은 1991년생으로 올해 2월 21일에 만 24세가 된다. 청양(靑羊)의 해를 맞이해 지소연은 2015 캐나다 여자 월드컵으로 일생일대의 도전에 나선다.

한국은 2003년 이후 12년 만이자 역대 두 번째로 여자 월드컵 본선에 나선다. 지소연에게는 첫 번째 월드컵 무대다.

지소연은 지난해 조 첼시에 입단해 한국 여자 선수로는 처음으로 잉글랜드 무대에 진출했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실력을 세계 축구팬들 앞에서 과시할 전망이다.

남자 축구에서는 울리 슈틸리케 감독의 '신데렐라'가 된 이정협(상주)의 활약이 기대된다. 청양의 기운을 받아 띠동갑 선배인 이동국(전북)의 후계자로 떠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는 청소년 대표 경력이 시원치 않은 데다 소속팀에서도 주전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2015 호주 아시안컵을 앞두고 대표팀에 '깜짝' 발탁돼 주목을 받았다.

프로야구에서는 1979년생 박한이(삼성)의 활약이 기대된다. 그는 삼성의 5년 연속 통합우승과 자신의 15년 연속 100안타 달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선다. 박한이는 2001년 데뷔한 이래 해마다 안타 100개 이상을 기록하며 기복 없는 활약을 펼쳤다.

프로배구에서는 2년차 '시세대 거포' 전광인(한국전력)을 주목해야 한다. 데뷔 시즌에 이미 소속팀과 국가대표팀에서 에이스로 떠오른 그는 올 시즌에도 거의 모든 공격 부문 기록에서 10위권 안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1979년생 김주성(동부)은 통산 블록슛 1000개 달성이라는 전인미답의 경지에 도전한다.

/장병호기자

지소연 박한이

새해 스포츠 이렇게 달라진다

프로야구 사상 첫 10구단 · 프로농구 2인 외국인 선수 출전

인기 프로 스포츠들이 2015년 달라진 모습으로 팬들을 찾아간다.

프로야구에서는 지난해 퓨처스리그에 속했던 10구단 KT 위즈가 1군 무대에 등장해 첫 10구단 시대를 연다.

KT 위즈는 수원을 연고지로 두고 있다. 통신업계 라이벌인 SK·LG와의 대결, 그리고 수도권 팀들과 맞대결 등으로 팬들의 구미를 자극할 요소가 많아졌다는 분석이다.

경기 수도 늘어난다. 올해부터 프로야구는 팀당 128경기에서 일본 프로야구와 똑같은 144경기를 치른다. 신생팀 KT의 합류로 팀 수가 '짝수'로 맞춰졌기 때문이다.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달리는 6연전 체제로 돌아간다.

올해 포스트 시즌은 기존 4강에서 5강 체제로 바뀐다. 메이저리그나 일본 프로야구처럼 와일드카드 도입해 5위 팀까지 '가을 잔치'를 즐길 수 있게 됐다. 와일드카드 결정전은 4위 팀 구장에서 이동 없이 2연전으로 펼쳐진다.

이밖에도 144경기의 장기 레이스에 맞춰 배경음악 시간 변경 등을 통한 다양한 경기시간 단축 방안도 추가된다.

프로농구 2015~2016 시즌에는 외국인 선수 2명이 동시에 뛰게 된다. 프로농구연맹(KBL)은 올해 시즌부터 2, 4쿼터에 외국인 선수 2명의 동시 출전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또한 외국인 선수의 신장 제한 제도가 8년 만에 부활한다. 단 2명의 외국인 선수 중 1명은 신장 193㎝ 이하로 뽑아야 한다. 이는 최근 농구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프로배구에서는 팀명 변경이 있다. LIG손해보험 배구단은 1월 중순부터 KB금융지주로 이름이 바뀐다. KB금융지주가 LIG손보를 인수했기 때문이다. 2005년 프로배구 V리그 시작 이래 시즌 중 팀명이 교체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병호기자

프로배구 전적 1일

현대캐피탈	0	3	대한항공
IBK기업은행	3	1	흥국생명

프로농구 전적 1일

SK	11	22	21	18	72
KT	17	9	22	12	60
동부	19	25	24	16	81
인삼공사	19	27	14	12	72
KCC	19	10	19	16	71
삼성	9	17	25	16	68
우리은행	25	16	22	21	84
하나외환	15	22	18	20	75

창조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창조경제를 통해 희망을 밝히고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현대자동차그룹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HYUNDAI
MOTOR GROUP